**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ㆍ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ㆍSommerzeit:**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ㆍ말씀편지:** 부활절 전까지 주중 매일 아침 말씀묵상을 담은 ‘말씀편지’(음성)를

카톡 단톡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사오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헌금:** 가능하면 매주교회 구좌로 송금해주시고,

어려우시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봉헌하세요.

**ㆍ21대 총선 재외선거 중지:** 코로나19로 인해 재외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ㆍ생일축하:** 김종권

**\*\* 함께 기도합시다 \*\***

1)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2)확진자들을 치유해주시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3)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더욱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4)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5)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6)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잘 넘기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막12:1-17 월/막12:18-34 화/막12:35-44 수/막13:1-13

목/막13:14-37 금/막14:1-11 토/막14:12-21 일/막14:22-31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3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3월 29일** | **4월 5일** | **4월 12일** | **4월 19일** |
| **예배기도** | 강일구 | 나지홍 | 한상철 | 박상훈 |
| **말씀일기** | 손민해 | 민경웅 | 정정아 | 석혜진 |
| **안내위원** |  |
| **헌금위원** | 가족 중 |
| **애찬봉사** |  |  |  |  |

**37-13호 2020년 3월 29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각 가정

유초등부예배: 12:00 각 가정

청소년부예배: 12:00 각 가정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잠시 휴강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가 정 예 배 (5. Fastensonntag)**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예배부름/Eingangsgebet 사33:2, 5-6 |
| 찬송/Gemeindelied 6장 목소리 높여서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
|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128번 |
| 찬송/Gemeindelied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 기도/Gebet 강일구 안수집사말씀일기/Bibeltagebuch 손민해 교우찬양/Chor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마가 12:1-17  |
| 설교/Predigt **’비교할 수 없는 차이’**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설교자찬송/Gemeindelied 94장 주 예수 보다 더봉헌/Kollekte 봉헌송: 서민규 집사  |
| 광고/bekantmachung주기도송/Vaterunser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축복/Segen 손교훈 목사**\*\*교회 구좌**Baek, Han-Jin KimIBAN:DE29 3007 0024 0598 1931 00BIC: DEUTDEDBDUE |

 |  |  |

◀ **함께 나누는 글** ▶

“**나는 배웠다”** 송길원 목사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 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 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성직자도 아니었다. 소식을 듣자 대구로 달려간 신혼 1년 차 간호(천)사가 가슴을 울렸다.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든다는 겁 없는 간호(천)사들의 이야기에 한없이 부끄러웠다. 따뜻한 더치커피를 캔에 담아 전달하는 손길들을 보며 살맛 나는 세상을 느꼈다. 이마에 깊이 팬 고글 자국 위에 밴드를 붙이며 싱긋 웃는 웃음이 희망 백신이었다. 나는 배웠다. 작은 돌쩌귀가 문을 움직이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저들의 살아있는 행동인 것을.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나는 배웠다.

인생의 허들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임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재정의하고 살아남아 영웅이 될지,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닥친 불행과 시련을 운명이 아닌 삶의 한 조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때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배웠다.

카뮈의 ‘페스트’에 등장하는 북아프리카의 항구 오랑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척,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지옥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는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었다.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었다.’(미국 ABC 방송 이언 기자) 일본의 대지진 때 일어났던 사재기도 없었다. 오히려 ‘착한 건물주 운동’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외출 자제로 인간 방파제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켰다. ‘배려와 존중’으로 빛났다. 나는 위기에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극한 상황에서 ‘도시의 품격’이 확인된다(이동훈)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 유지도 대충, 생각도 대충…. 이번 사태에도 너무 안이했다. 이제는 나 스스로 면역주치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환경 문제나 생태계의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다시 찾아올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환경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나는 확실히 배웠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相生)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안코라 임파로!(Ancora imparo!)”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이탈리어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스케치북 한쪽에 적은 글이란다. 87세 때 일이다. 내 나이 겨우 60을 넘겼다. 그래, 우리는 모두 살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안코라 임파로! (Ancora imparo!)”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

**<설교>**

 **비교할 수 없는 차이**(막12:1-17) 손교훈 목사

**서서히 대결이 본격화**합니다. 선과 악, 어둠과 빛 사이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품격에서나, 지혜에서나, 용기에서도.

예수님은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며 따랐던 것은 분명 **‘왕의 행차’**였습니다. 다만 그 왕은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지만, 예루살렘 성전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잃은 성전**이었습니다. 아니 힘 있는 인간들, 교만한 인간들, 고상한 척 하는 위선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뜰에 잔뜩 펼쳐진 장사꾼들의 상을 다 **뒤집어엎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들과 결탁하여 불의한 이익으로 뒷배를 불리고 있던 성전 당국자들, 주인인 척 하며 행세하고 있던 위선자들을 뒤집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성전의 참 주인께서 온 몸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되자,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며 지내온 자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대결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찾아와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는 그럼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질문을 되던지셨고, 결국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1라운드는 그들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과의 **제 2라운드와 3라운드**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문이 막힌 그들을 향해 **이야기 하나**를 들려 주십니다. **이젠 그들이 들을 차례.**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밭과 즙짜는 틀, 그리고 망대까지 지어서-소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그 밭에서 일할 사람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에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1).

그런데, 시간이 흘러 수확기가 지났기에 **주인은 얼마간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포도원 일꾼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는 주인이 기대하는 몫을 주지 않고 **빈 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지만, 그 종도 온 몸의 상처 투성이로 돌아왔고, 다시 또 다른 종들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5)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야기가 이쯤까지 진행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있었을까요? 거꾸로,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악한 농부들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걸까요? 농부들에게 무슨 악 감정이 있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상상하게 될 때, 예수님이 **악의 세력, 껍데기 세력에게 먹이시는 지혜로운 ‘한 방’**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힘이 있게 될 테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성전 당국자들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으로 **감정 이입**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포도원 농부들 이야기를 쉽고도 짜릿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그들 중에서는**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소작 일꾼들을 많이 부리고 있었을텐데,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렇지, 세상에 저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나?** 아니 내 땅에서 일하게 해 주고, 먹고 살게 해 주었더니, 주인의 것을 지들이 다 가져가려 해? 에이 괘씸한 놈들….**그나저나, 예수라는 이 사람**, 우리 기득권 세력의 마음도 좀 알아주나 보내….**혹, 우리 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마음 속이 두 가지 생각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시는데, 바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일꾼들에게**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최후” 카드**를 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며 아들을 보냅니다(6). 그러나, 농부들은 도리어 이것을 최상의 기회로 여깁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7) 하면서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8)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맺으시자, 지금까지 조금은 감정이입을 하며 예수의 말을 들어주고 있던 **성전 당국자들의 머리 속이 하얗게 되면서, 가슴은 흥분과 분노로 끓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때 예수님은 **마지막 쐐기**를 그들에게 박아 넣으십니다. 9-10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너희는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시원하면서도 강력한 한 방**!

**‘주인의 것이 탐나서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른 그 일꾼들 이야기가 바로 너희들 이야기라네, 이 사람들아. 성전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야, 성전에는 이제 새 사람들이 들어찰거야. 이제 너희가 물러갈 때가 왔다!’**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이 순간에라도 예수를 진정 두려워했다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사람들-무리들만이 두려웠고,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성전의 참 주인을 무시했던 것**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결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들은 잠시 물러갔지만,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3라운드** 시작. 이제 그들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시편은 그 첫 구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시1:1a)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기 악인들의 길 가기를 재촉합니다. 거들먹거리며 **대충 힘으로 예수를 눌러보려다 잘 안 되니, 이제 꾀를 부리는데,** 그것은 가장 **예민한 주제를 질문하여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술수**입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탁월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기가 막힌 질문으로, 예수에게 강펀치를 먹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상황**에서,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이까? /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14b-15a) 하는 질문은 정말 어느 쪽으로도 답하기 어려운 당혹스런 질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외식함을 아시고”는 그들이 쳐 놓은 시험-올무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당시 통용되던 화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보이게 하시고는, 여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시자, 그들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대답하자, 한 마디 하시지요. **그 한 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17). 그들은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17)깁니다. 이 정도 되면, 무릎꿇어야 하는데, 그들은 더욱 악한 길을 재촉합니다.

성전 뜰의 상인과 환전상들과 결탁하여 **불의한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던 이들 성전 당국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마치**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던 포도원 일꾼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고자 던졌던 질문조차도 또 세금으로 일컬어지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들 머리 속에는 돈 밖에 없었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돌아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품격있는 지혜와 용기는 비교 불가! 그들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꿇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요 참 용기입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만 무릎꿇고 예수께만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요 용기임을, 최고의 품격**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 세상의 주인, 성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당하게 대우해 드리는, 품격 있는 인생, 지혜롭고 담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이 땅에 와 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욕심이,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가로막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위기 속에서도, 오직 역사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모시고, 그 길 따라 가는 제자로 살게 하소서. 악한 무리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강제로 체포하고 십자가 죽음에까지 몰고 가겠지만, 그들의 승리같이 보이는 것 조차도 곧 뒤집히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을 살되 오늘만을 살게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되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소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